

한인뉴스

2015

5

VOL. 227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vely Spring!

롯데쇼핑에비뉴에서 선보이는
사랑스러운 제안들과
특별한 이벤트를 즐겨보세요

- 새로운 봄 신상품들이 입고되었습니다.
- 봄시즌을 맞이하여 새로운 매장들이 곧 입점합니다.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EVERYDAY CASHBACK

최소금액 이상 구매시



LOTTE Gift Voucher

- 2015년 5월 4일 부터 17일까지:
꽃피는 5월 캐쉬백 이벤트 -
롯데상품권 증정
- 2015년 5월 18일 부터 26일까지:
Special Lucky Dip

IT'S PAYDAY

27-31 May 2015

DISCOUNT
UP TO
50%

PAYDAY SPECIAL
10%
ADD DISC.

BUY 1 GET 1 FREE

식음료 및 기타 매장



LOVE BEAUTY CLUB

LOVE Beauty Club

특별 뷰티 케어 패키지
화장품 & 향수 구매시 10% 할인
최대 2백만 루피아 상품권 증정



롯데 멤버스

롯데 쇼핑 애비뉴 및 롯데 계열사,
기타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추가 혜택

ART & CULTURE

Edutainment Center

DISCOVER THE TRUE YOU

JOIN NOW

ARTURE CENTER - 3F
021 - 2988 8640

Art & Culture Center

육아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 키즈 클럽 / 발레 /
춤 / 음악 / 어학 / 모델링 / 연기 /
회화 및 공예 / 바틱 / 꽃꽂이 / 보석 / 디자인 /
요리 교실 / 명상 / 요가 / 필라테스 /
호신술 / 파이낸스 / 리더쉽 / 심리 상담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한국 문화의 날/ UI 에 설치된 Photo zone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 칼럼/ 질어지는 초록색<김문환 논설위원>

황우여 부총리 동포 간담회

한국문화의 날

한인사 편찬위원회 중간회의

K-Festival & Enjoy Gangwon

목포 해양대, 새누리호 입학

한인문예총 총회소식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여야간 합의,
정치적 합의....

자기의 말이 먹혀야 소동한다고 말하는 지금,

서로를 설득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해가 바다에서 뜨는 섬사람과
해가 산봉우리에서 뜨는 산골사람에게,
원리를 아는 중재자가 나설지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 진실은 존중되기 힘듭니다.
하물며 의도를 가진 중재자라면
저마다 나름의 진실에 거리를 더할 뿐입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You've got a friend
팝송 가사를 읊던 아베 수상의
미의회 연설 장면을 TV 로 보면서
언짢은 마음이 드는 건 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친구인가?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contents

2015. 5. 통권 227 호

2015
5

이 달의 읽을거리

KOWIN 정기총회 제5회 국제사생대회 KOICA, 그린 인도네시아 캠페인 JIKS 소식 JIS 소식	Jalan-Jalan Jakarta / Perabuhan Sunda Kelapa <사공경>.....42
2015 4월 경제브리핑.....29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46
가슴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도전 <김미량>.....34	신성철 칼럼.....50
지상갤러리/ 가족 <김선옥>.....38	법률해설/법인세감세혜택<이승민>.....52
5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0	내 마음의 뜰 / 재미 <시:이율리/그림:이태복>.....59
	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화 도 소.....62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짙어지는 초록색

김문환/논설위원



B.J. Habibie



Prabowo Subianto

수 하르또 정권이 장기집권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1990년 12월 7일, 하비비 과학기술부 장관은 NU, 무하마디아 등 주요 종교단체의 지도자 49명을 규합하여 ‘이슬람지식인연합(ICMI)’이라는 단체를 동부자와주 말랑(Malang)시에서 결성한다. 이 정치단체는 수하르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출범하였으나, 실은 수하르또 정권의 정체성을 급격하게 변환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버클리학과’ 핵심 경제관료인 수마를린 재무부 장관과 군의 실권자인 베니 무르다니 장군은 쌍두마차를 형성하여 이슬람권 일변도의 정치구조를 다변화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던 터였다. 수마를린과 베니의 종교는 카톨릭이었다. 바로 이슬람지식인연합은 이러한 ‘탈이슬람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특히 정치사회를 주도하던 국군 상층부 내에는 종교적인 신분을 기준으로, 소위 ‘ABRI Merah Putih’와 ‘ABRI Hijau’로 뚜렷하게 양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L.B. Moerdani



J.B. Sumarlin



Tri Sutrisno

이와 같이 종교의 상징색을 집단의 대칭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수하르토 대통령이 ICMI로 대변되는 이슬람권과 밀월시대를 열어가던 1990년대 초에 주미대사를 지낸 하스난 하비프 장군이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때 ‘Merah Putih’ 그룹, 즉 베니그룹으로 분류되던 장성들로선 프리수뜨리스노(부통령 역임), 에디 수드라자(육참총장 역임), 헨드로쁘리오노(국정원장 역임) 등이 있었으며, 그 반대편에 서서 ‘탈베니화’를 주도한 이슬람권 군부그룹에는 화이잘 탄중(국군사령관 역임), 하르토노(육참총장 역임) 등이 포함되었으나, 실질적인 기획자는 1995년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의 사위, 뿌라보워 준장이었다.

그는 자신과 임관연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자키 마까림, 끼블란 쟈, 샤프리 삼수딘, 무흐디 장군과 연대하여 이슬람군부 결속화의 선봉에 나선다. 이러한 군부의 양극화 현상은 이후 군부실세로 등장한 위란또, 수기오노, 유도요노 장군의 노력으로 중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 5월 22일 뿌라보워 중장의 후임으로 전략사령관으로 임명된 조니 루민땅 중장(현 필리핀대사)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비토 당하며 불과 17시간 만에 하차하자, 군부내부에는 여전히 종교차별이라는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여 내보였다.

수하르토 철권정치 기간 중엔 거의 그 모습을 볼 수 없던 여성들의 ‘질밥’ 착용이 어느새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일반화된 복식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신문의 경제면을 펼치면 샤리아은행 관련기사가 점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아제주에서는 태형을 가하는 장면이 언론에 등장하여 시간성과 공간성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 무역부장관령 제6호가 4월 16일부로 발효되어 미니마켓과 편의점에서의 맥주판매가 금지되더니, 국회에서는 아예 알코홀 농도 1도~5도의 주류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초안하여 금년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법안기초에 앞장선 의원들은 이슬람당인 PPP,PKS소속으로 알

려지고 있다. 주류판매 제한조치를 국민건강과 종교적 근거에서 찾고 있는 일각에 대해, “맥주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더냐”며 직격탄을 날린 아후 자카르타 주지사와 더불어, 적당한 주량의 맥주 몇 잔은 오히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며 창조적 마인드를 발상시킨다는 ‘독자의 소리’가 들려옴은 일면 안도감을 안겨 주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외화가득을 위해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발의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마실 권리를 제한하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입법단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어찌면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속박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울지도 모른다.



Basuki Tjahaja P. (Ahok)

최근 변경된 취업관련 규정의 여파로 외국인 귀국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그동안 제2고향으로 느껴졌던 인도네시아를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주변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곳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취업 차, 사업 차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국땅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디를 가나 그곳의 법령과 문화와 관습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융통성있게 순응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되며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지 어언17년, 예언자 무하맛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며, 코란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하여 이슬람의 상징색으로 고착된 ‘초록색(Hijau)’은 지금 인도네시아 곳곳에 스며들어 6월의 신록처럼 점점 더 짙게 채색되어 가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동포 간담회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자카르타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황 부총리는 23일 저녁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앞서 이날 유습 깔라 부통령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추진과 농업 부문 협력, 대학생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 교육 당국의 잘못된 영어와 국어, 역사 교육에 대한 개선과 재인도네시아 동포와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조태영 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방문 중에 싱가포르에 리셴룽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쯔잉뽀 상 베트남 국가주석, 유습깔라 부통령, 메가와띠 투쟁민주당 대표(전임 대통령), 뿌안 마라하니 인적개발문화조정장관을 면담했다. 이번 황우여 부총리와 길정우 의원의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생각한다” 고 말했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그 역사가 50년이 되어가는 성숙한 한인사회이며 인도네시아인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한국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국어 교사의 양성이 불가능해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동포간담회 때 대사관에 교육관 파견을 건의하여 청와대로부터 교육관 파견의 허가가 났다는 소식



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부총리께서 귀국 후 이를 확인하여 꼭 교육관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인도네시아에는 단순 노동인력은 풍부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기술대학을 설립하여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한인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양국간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한인동포들의 자부심도 크게 고무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우여 부총리는 격려사에서 “현재 2200개의 한인기업이 운영 중이며 백 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최초로 투자한 국가이며 제철과 중화학에 고도의 기술이 서로 오고 가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을

만나며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한국에 대하여 협력의 동반자로서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니라 깊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프라, 제조업 등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농업분야 등에 대한 협력 역시 부통령께서 원하셨다”하고 “오늘 재외한국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는 JIKS를 방문했다. 오늘 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 파견 문제나 기술학교 건립도 본국에서 힘이 닿는 데 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 돌아가는 즉시 교육감 파견에 대해 재촉하며 제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길정우 국회의원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협력할 건 협력한다면 양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의 날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명문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UI) 에서 8회째를 맞이하는 ‘2015 한국문화의 날-음악이 우리를 부른다’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학과 학생회가 주최하고 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삼성 등 한인기업들이 후원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이날 행사는 탈춤, 토크쇼, k-pop 커버댄스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한류 장식품을 전시 판매해 한국장터를 방불케 했고 한국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로 성황을 이뤘다.

리틀램 유치원(원장 박현순) 교사들과 원생들 또

한 양증맞은 개량 한복을 입고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한몫했다.

한국문화원 김석기 원장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마다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는 한국문화의 날 행사는 한국문화원의 자랑거리이다.” 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가 한국학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진 이루의 미니콘서트에서 ‘까만안경’, ‘흰눈’, ‘미워요’, ‘끄무스라안’ 등을 열창하며 학생들과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한인사(가칭) 편찬위원회 중간 회의

3일(금), 재 인도네시아 한인의 진출 역사와 경제, 문화, 종교 생활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한데 모은 ‘한인사(가칭)’ (발행인 한인회장 신기엽, 편찬위원장 김문환)를 발간하기 위한 편찬위원회 중간 회의를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가졌다.

무엇보다 자료 수집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 편찬위원회는 김문환 편찬위원장의 업무를 이시기 편집장과 분담하여 코트라가 나온 64년도를 기점으로 한인사 50년을 다루기로 했다.

또한 종교 문화예술에는 박정자, 교육분야는 서미숙, 단체분야는 김길녀, 진출사는 이상기 등 소그룹으로 나눠 연대별로 산 증인들과 심층 인터뷰 후, 시대별로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필진의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확보와 보상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대별 흐름은 진출기 (64년부터 87년, 한인사회 2천여명), 성장기(87년부터 2008년, 98년 IMF 폭동, 한인사회 17000여명.), 안정기/발전기/희망기/도약기(호칭 미정, 2007,8년부터 현재까지)로 나누기로 했다.

신기엽한인회장은 “9개월 정도 남은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책을 발간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촉박하다. 서로 협조하여 객관성을 가지고 발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여 년 전 ‘한인뉴스’ 지에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고문이 연재된 이후, 한인사회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해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한인사’ 발간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13년 5월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이 발간되고, 동년 9월 ‘외교 40년사’가 대사관에 의해 발간됨으로 ‘한인사 발간사업’은 필연적인 과업이 됐다.



K-Festival & Enjoy Gangwon

난타와 NPI 자카르타에 오다 강원도로 인도네시아 영화로케도 성공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K-Festival & Enjoy Gangwon 행사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롯데쇼핑에비뉴에서 개최됐다.

난타가 특별 초대되어 동 행사기간 중 매일 오후 2차례씩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난타 Showcase를 선보였다. 또한 행사장에는 매일 흥겨운 사물놀이가 소개되었고, K-Beauty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Make-up 전문가 초청 시연을 벌였다.

금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강원도 관광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N.P.I의 공연이었다. NPI는 데뷔 전부터 2018년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NPI는 국내 멤버들뿐만 아니라 조나단은 홍콩, 리연



조태영대사

최문순강원도지사

은 말레이시아의 국적으로 구성되어, 데뷔 전부터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금번 행사에는 강원도 최문순도지사가 직접 인솔하는 대규모 관측단이 공동 참가하여 행사기간 중 활발하게 강원도관광관측활동을 벌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기간 중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사와의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굴지의 영화제작사인 Rapi Film이 제작하는



‘질밥을 쓴 여인’이라는 인도네시아 영화의 강원도 로케에 성공한 것이다. 동 영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강원도에서는 동 영화의 강원도 촬영 시 편의를 제공하고, 영화제작사는 영화중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영화중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영화상영중 자연스럽게 강원도를 홍보하게 된다. 동 영화 촬영팀은 금년 여름 강원도에서 촬영을 시작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영화개봉은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2014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 관광객은 75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5년간 평균 19%씩 늘어나 성장 폭이 매우 크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을 찾은 75만명 무슬림의 수가 지난해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77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8%인 2억 2천만명이 무슬림들이지만 그동안 한국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관광하기에는 불편한 나라로 굳어져 있었다. 이를 타개해 보고자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무슬림기도소와 할랄레스토랑 설치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강원도와 공동으로 무슬림 방한기도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게다가 고성에는 DMZ박물관이 있고 무슬림 기도소가 설치되어 있어 무슬림 방한 기도상품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강원도는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남이섬이 있고, 남이섬에는 할랄식당과 단체기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강원도가 먼저 무슬림 방한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2~3년 뒤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뚝심을 기대해 본다.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 입항



28일,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 (선장 임공수)가 Tanjung Priok항에 입항하여 선상 만찬을 열었다. 한인회, 교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현악단의 감미로운 음악 속에 환 트인 바다, 전라도에서 공수해 온 맛깔스럽고 풍족한 뷔페 음식 등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제항해실습에는 해사계열 및 해양공학계열 학생을 비롯해 지도교수와 승무원 등이 실습선에 승선하여, 국제적 감각과 전문역량을 지닌 해양기술 전문인으로서 경험을 쌓고 상선사관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항해과정에서 우수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선박운용과 관리 능력에 대한 실습뿐만 아니라 목포해양대와 국제교류협력을 맺은 유관

기관을 방문해 우의를 다지고 해양한국의 국위 선양에 나선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 해기전문 인력 양성이란 목표 아래 해사대학 학생들의 승선 실무능력 습득을 위해 매년 2회 국제항해실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호는 32일 동안 목포를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다낭을 거쳐 5월 15일 32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목포로 돌아간다.

한인회 신기업 회장은 “여러분들의 꿈을 키울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이다.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배들의 정을 느끼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환영했다.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문예총) 정기총회 소식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문예총)은 지난 1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년간 이끌어 온 김문환 회장의 후임으로 강희중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2015년 3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강희중 회장은 새로운 임원진 구성으로 사공경 부회장(문협회장), 이일하 부회장(음협회장) 및 사무국장(겸임), 신돈철 부회장(미협회원),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을 임명하였다.

*** 주요 회의 내용**

1. 문예총 주관 문예총 종합예술제를 2015년부터 한인회가 주관하는 한.인니 우정의 페스티벌에 합류하여 공동 주최 하기로 함.
2. 한국문화원과 공동 사업인 한국의 예술인 명사초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민과 현지인을 위한 강연 또는 공연을 실시토록 함.
3. 광복 70주년 범국민 합창제에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이 참가함에 따라 후원을 하기로 결정.

4.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2015년 국제 음악경연대회(5월 2일 한국학교 나래홀, 시상식 및 수상자 연주회(5월 30일 한국학교 나래홀)에 문예총 회장상을 시상하기로 함. 챔버 오케스트라를 구성 10월 연주회를 준비 중.

5. 미술협회에서는 4월 18일 국제 어린이 사생대회를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개최(싱가폴 학교 5월 3일 시상식), 10월에는 미협 전시회를 개최(한국 문화원)

6. 헤리티지 코리아섹션에서는 국립박물관 책자 발행에 문인협회와 미술협회에 협조를 요청.

7. 아버지 양상블에서는 정기연주회를 6월7일(롯데 에비뉴)개최.

8. 기타사항으로는 부산시 예총광의 MOU 추진. 아름다운 나눔(자선 바자회) 실시. 색소폰 동호회의 실버 가요제 실시 등이 논의 됨.

각 단체에서는 명사초청 계획 및 올해 활동 사항들을 보고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문예총에서는 적극 후원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한바패 회장 : 박형동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월화차 회장 : 김인순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촉탁 전문위원>

-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 * 최석일 : 문화컨텐츠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부 '2015 정기총회'

17일,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부 (이하 KOWIN, 회장 박현순)는 '2015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PPT 화면을 통한 2014년도 코윈 활동 및 업무보고, 2015년 사업계획 보고, 전문가 강연, 회원 소개, 경품추첨 등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순 회장은 “신입회원이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동포사회에 재능을 나누고 사회에 봉사하는 코윈 회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사관에서 코윈 지원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임현철 관세관은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겠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제활동 환경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니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인도네시아 정치.경제’를 주제로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를 당부했다.

코윈은 고교생(1997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출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리더십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캠프는 책 읽는 즐거움 찾는 지혜의 보물상자, 의사소통과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스피치 코칭, 선배에게 듣는 취업과 진학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불우한 사람에게 한 채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The Foundation Habitat for Humanity Indonesia) 집짓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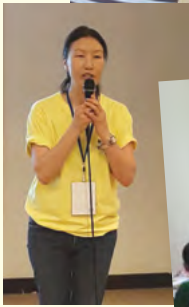


제5회 국제사생대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한인미술협회가 공동주최하는 International Drawing Contest는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5회를 맞이 하였다. 이 행사는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한국문화를 알리려는 취지로 매년 5월에 실시되고 있다.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250명이 참가하여 싱가포르 국제학교(SIS)에서 7개 교실로 나뉘져, ‘기억속의 여행이야기’,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를 주제로 자유롭게 재능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술협회 이수진회장은 인사말에서 “다국적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3년째 장소를 제공하는 SIS 와 CJ뚜레쥬르 측의 후원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일찍부터 도착하여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로 이 행사는 성황을 이루며, 잔치의 한마당을 방불케 했다.



5월2일, 한국문화원에서 시상식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총49명) 과 수상작 의 전시회가 열렸다.



대상 손민재 (JKS)

KOICA 해외봉사단원 친환경캠페인 “Ayo Hijau Green Indonesia!”



‘Ayo Hijau Green Indonesia! (초록이 되자, 푸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 해외봉사단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친환경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은 코이카의 지원으로 깔리만탄 반자르마신에서 진행되었던 KOICA와 UNESCO의 ‘Green School Project’ 를 계기로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자발적인 환경보존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Green School Project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깔리만탄 지역의 봉사단원들은 환경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지난 2014년 종료되었지만 깔리만탄 단원들은 지속적으로 환경보존 활동을 하기로 의기투합하고 ‘Ayo Hijau Green Indonesia’ 라는 친환경캠페인을 구상하였다. 첫 번째 활동으로 봉사단원들은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방대한 양의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가 인도네시아 환경문제의 주범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대신해서 사용할 텀블러와 에코백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찌짜, 오랑우탄 등의 인도네시아에서 친근한 동물 등을 모티브로 걸면에 들어갈 문양과 메시지를 직접 디자인 하였고 코이카

사무소의 지원과 협력으로 수작업을 통해 에코백과 텀블러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코백과 텀블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해외봉사단원들에게 보내어 봉사단원들이 파견된 기관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경캠페인 기획취지와 에코백 텀블러 활용법을 동봉하여 사람들에게 더 푸른 인도네시아를 만들어가자는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깔리만탄 지역 봉사단원들의 친환경 캠페인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봉사단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어 동참분위기가 급속히 형성되었다.

특히 동부자바 지역의 봉사단원들은 올해 안에 동부자바 지역의 젓줄인 ‘브라따스 강 살리기 운동’ 을 기획하고 동부자바 주정부 당국 등과 협력하여 지역 학생들과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깔리만탄 단원들 또한 ‘Ayo Hijau Green Indonesia’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환경보존과 관련한 정보를 올리고 에코백과 텀블러 활용사진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전역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비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의 환경보존 노력은 작아보이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이어져 인도네시아 주민



과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고 오염되었던 환경이 개선되는 환경운동이 펼쳐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자카르타 *아르떼* 여성합창단이 2015년 4월 6일 창단되었습니다.

아르떼여성합창단은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또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본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작은음악회, 순회연주회 등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채영애

지휘:김영희

반주:변성연

총무:김혜영

연습장소:한인연합교회 갈릴리홀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30~12:00

연락처:김영희 0815 181 3102

김혜영0817 175 613

관심 있으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접시꽃 당신' 도종환 시인과 함께 하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명사 초청 시낭송 및 문학 강연

시에게 길을 묻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흔들리고 젖으면서 피는 우리 삶 곳곳의 이야기를 도종환 시인의 시와 이야기로 만나봅니다.

시 간 : 2015년 5월 25일(월) 오후 5시

장 소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SCBD 소재 Equity Tower 17층 9호

초청시인 : 도 종 환

강연주제 : 시에게 길을 묻다

접 수 처 : 자카르타경제신문 홈페이지 (www.pagi.co.id)



2015 인도네시아 차세대 무역스쿨

OKTA Overseas Korean Next Generation Trade School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1세기 한민족 경제사관생도 육성”


 2015년 6월 12(금) ~ 14(일) (2박3일)


 자카르타 시내 호텔 예정 (장소 추후 공지)

 전액 무료 (숙식 제공 포함)

 50명 제한
한국상품 무역에 관심 있는 동포
만 37세 미만 동포 청년
한국어 의사소통 및 수강이 가능한자

 교육 우수자 한국방문교육 추천
대한민국 유관기관 연계사업 추천

 접수 마감 2015년 5월 31일 15:00까지 이메일 접수

 oktajakarta@gmail.com / 0858 8831 1218 하영빈 총무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제6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우리는 때로 자떠나무로 살기를, 파파야나무처럼 살기를 바라며,
손 없는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로 세 단어 가슴에 담고 따만미니 연가를 부르며
허영 묘지를 찾기도 하고, 낭만이 있는 라플레스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향기와 색깔에 젖어 병아완 솔로에서
별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봅니다.

울지마 슬퍼마, 알수록 재미있는 인도네시아랍니다.
적도의 별 아래 말랑 할머니와 옆집 까각을 불러와
우리가락을 읊조리며 인도네시아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이 분주하도록 나의 추억, 나의 보물로 쌓아갑니다.

(굵은 글씨체-제5회 수상작 제목)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5년 5월~7월31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A4 2쪽에서~ 5쪽 / 시 부문 2편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koin@hotmail.com / milkway76@hanmail.net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일시 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명	성 인 부		학 생 부		시상내역
	인원	시 상	인원	시 상	
대상	1	주인니한국대사상	1	주ASEAN 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1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	3	한*인니문화연구원상	3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원: 재외동포재단 / PT.TAEWON INDONESIA / PT. PRATAMA ABADI

PT. CIPTA ORION METAL / LOTTE MALL AVENUE

붙임 ; (글자모양=바탕체, 글자크기=11, 행간=160%)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JIKS,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마련

- 김성은 주 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방상혁 가정의학 전문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학생들이 각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연중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25일에는 30여명의 JIKS 학생들이 방과 후에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자랑스런 해외건설 외교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은 공사의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의 역할과 외교관의 역할,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1시간 정도 진행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김성은 공사는 외교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애국심도 있어야하고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지만 외교업무에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므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가적 대표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와 폭넓은 경험을 당부하였다.

평소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이 있어 참가하게 되었다는 현정원(11학년) 학생은 “제가 꿈꾸는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재미있고 편안하



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시니 좀 더 꿈에 가깝게 다가간 느낌이 들었어요.”라며 참가소감을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2일에는 전 헬스포커스뉴스 대표 방상혁 가정의학 전문의를 학교에 초청하여 ‘WHO AM I?’란 주제 속에 지구인으로서의 소중한 존재인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이고,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방과 후에 희망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이었지만 중고생 100여명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약 1시간 정도의 강연은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 안의 생명력을 최대한 확장·발전시킬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함을 흥미 있게 풀어냄으로써 학생들에게 소우주로서의 ‘나’의 소중함,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각자의 삶속에서 행복을 찾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지구에서 존재한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어 질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이 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8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개최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제8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시 자격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본교 및 자카르타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경시대회 요강

1. 원서접수 : 2015년 4월 20일(월) ~ 4월 30일(목)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과목당 20만Rp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험일		시간	비 고
5.23(토)	국어	07:30~09:00(90분)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 전 입실
	수학	09:30~11:00(90분)	
	영어	11:30~12:30(60분)	

5. 시험유형 및 출제범위

□ 국어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언어기초 영역, 언어기능 영역, 사고영역 평가 등

나) 문항 수 : 총 45문항(객관식 35문항, 서답형 10문항)

다) 출제 범위 : 고교 전 교육과정

□ 수학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계산능력, 이해능력, 적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나) 문항 수 : 총 25문항(학교과정수준의 문제 20문제/경시대회용 문제 5문제)

다) 출제 범위 : [수학10] 전체, [수학I] 전체

□ 영어경시대회

가) 출제영역 : 문법, 어휘, 독해

나) 문항수 : 총 45문항(객관식)

다) 출제 범위 : 영어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사적인 지문과 고급 어휘 사용 정확한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

□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중등부 교무실

(TEL 행정실 844-4958 EXT153, 교무실 EXT209. 304)

-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부총리, JIKS 방문 교과서 배부 지연 방지 등 교육지원 약속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를 방문하여 교사,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학교에 도착한 황우여 부총리는 1,2학년 화동들과 전교임원 학생들에게 꽃다발과 함께 열렬한 환영을 받은 후 도서관, 운동장, 수영장, 초·중등 건물 등 학교시설물을 차례로 시찰하였다.

이어 가진 간담회는 김승익 교장의 학교 현황 보고로 시작하여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의 질의와 황우여 부총리의 답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총리의 격려 및 기념품 전달식으로 마무리되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마무리말씀을 통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가 재외 한국학교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 할 것이며, 특히 교과서 공급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학기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Central Student Council 선거



(학생기자 김교빈)



2014/15 학기의 끝이 다가오면서, JIS에서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Central Student Council 선거가 실시되었다. Central Student Council (전교총학생회)는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6명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전학생을 대변하며 학생들과 선생님들간에 소통을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풍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리더쉽과 봉사 활동을 지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난 4월 17일, 한국인 학생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학생들은 2015/16전학교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전주 선출 위원의 자리를 두고 2분간 자신의 경력, 기량, 정책 그리고 비전을 전학생에게 연설을 했다. 5일간에 투표끝에

6명의 2015/16전교학생회 인원들이 발표 되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전교학생회 회장은 정도훈 (11), 전교학생회 서기는 심재원 (10), 전교학생회 회계는 임보성 (11) 그리고 전교학생회 총무는 홍준기 (10)가 선출되었다.

2014/15 전교학생회 회장단은 일년 동안 Student Leadership Summit, Cilandak Games,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행사들을 개최해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 했다. 2014/15 전교학생회 회장단을 이끌어간 이보니 (12) 현 JIS 학생회장은 차기 임원진들이 현 회장단이 해온 일을 계속 추진해서 학교에 많이 기여하길 바라고, 차기 임원진들이 잘 이끌어 나가리라 기대한다.



2015년 4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2년 내 '1조달러' 클럽 가입 전망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조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분석기관 IH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향후 2년 내 중국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의 뒤를 이어 아태 지역에서 여섯번째로 경제 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8700억달러로 동남아시아권 최대 경제 규모를 기록 중이다. 오는 2017년께 인도네시아의 GDP는 1조14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올해 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현재 3400달러 수준이나 오는 2025년에는 8700달러까지 빠르게 확대할 전망이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대략 5.4% 대의 탄탄한 장기 성장을 거둘 전망” 이라고 말했다.

비스와스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2023년경이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러시아나 스페인, 네덜란드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GDP는 오는 2023년 2조10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현재 1조5200만달러 수준인 호주의 GDP를 추월할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루피아화의 약세로 인한 수출 회복과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상품가격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인구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향후 10년간 인도네시아는 매년 240만여 명의 청년층이 새롭게 노동가능 인구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사회적 안정성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 상품을 천연자원에서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의 재편과 다각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그 동안 석탄, 구리, 팜유 등 원자재와 농산물을 주로 수출해왔지만 최근 주요 자원 수입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 상태다.



인도네시아, 국토개발계획국, 10개 신도시 계획 밝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부 깔리만탄 판중 셀룰 등 전국에 10개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바섬 외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정기능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Bappenas)는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는 북부 깔리만탄 판중 셀룰, 북부수마트라 세이 망게이 등에 신도시를 세울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개발계획국은 서부 깔리만탄의 주도를 현재의 띠띠아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리노프 Bappenas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는 자바섬 외 새로운 경제성장 도시를 만들고, 나라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 신도시를 정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정비되면 수도의 행정기능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며 신행정수도 계획도 시사했다.

Bappenas는 민관협력(PPP)프레임을 활용하여 신도시를 개발하되,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의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상업시설이나 교육기관, 병원 등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출입국 신고서 폐지로 방문 용이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취항지인 자카르타와 발리의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됐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휴양지인 발리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출입국 신고서가 폐지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또는 발리를 방문하는 승객은 출입국 심사 시 여권과 세관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구매하던 도착비자는 그대로 구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도착비자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전 구매해야 하며 금액은 35달러이다. 여행비자의 유효기간은 30일이고 1회에 한 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오는 5월 9일까지 ‘발리 비즈니스 클래스 2인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특가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출발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2인 이상 구매 시 발리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108만3000원(총액운임)부터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단 이번 특가는 체류기간이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한정돼 있어 예약 전에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가 항공권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홈페이지(<http://www.garuda-indonesia.com>) 및 한국지점 예약/발권부(02-773-2092, selrr@garuda.co.kr)에서 예약 가능하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주 7회, 인천-발리 노선을 주 6회 운항 중이다.

제 16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막내려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23일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 반동 메시지,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파트너십 (NAASP) 강화에 관한 3개 문서를 채택하고 일정을 마쳤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우린 3개의 중요한 결과문건으로서 반동 메시지와 NAASP 선언,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했다” 고 말했다. NAASP 선언에서 각국 지도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간 오랜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다.

또 반동 메시지에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신흥 독립국의 지도자가 모여 제3세계의 결속을 맹세한 반동회의 정신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으로 지금도 확고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코위 대통령도 연대와 우호, 협력을 강조한 반동정신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협력을 이행하는 후속조치들이 훌륭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것만 담으면 퇴근이다!”



24일 남부 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청소용역직원이 유리창을 닦느라 분주하다.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은 오는 7월 1일 ‘다시 일터로’ 라는 이름의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BPJS에 의하면 전국의 일터에서 매일 397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절단 등 중상을 입는 경우와 사망하는 경우는 각각 평균 25,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업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모색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는 8일~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CPhI South East Asia (Indonesia) 2015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산메디캡, 안국약품, 에스텍파마, 엔지켐생명과학, 일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화일약품 등 7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38개국 약 100개 업체가 참가했다.

의수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제약 제품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한편 국제협력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2013. 9월경 창설한 중견국협의회체인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일원이며, ASEAN의 회원국이다.

특히 ASEAN은 경제부문(Economic)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통해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경제권 구현을 금년말을 목표로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국내총생산(GDP) 순위로 17위(우리나라 13위) 국가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수협은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참가한 제약업체들이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한국관을 찾는 외국 방문객을 위한 Business Lounge를 별도로 운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간담회를 통해 의수협 회원사를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PIC/S 가입, 제약 산업 홍보 및 GMP 평가 절차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주류판매 제한 여파...소매 매출 최대 30% 감소 우려

인도네시아 유통협회(Aprindo)는 미니 마켓(편의점)에서 지난 16일부터 맥주 등 주류 판매가 금지된 영향으로 회원사의 매출이 최대 30% 감소할 것이라 우려했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Aprindo 간부 사뜨리오씨는 “대도시 편의점 매출은 10~15%, 관광지 매장의 매출은 최대 30%까지 감소할 것” 이라 지적했다. 특히, 아직 유통업체에 의해 상품 공급이 끝나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편의점이 주류 재고를 떠안고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로서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가맹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35%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정부 측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소매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규정 시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또한 규제를 시행한 뒤 6개월 후 효과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발리 등 관광지에서는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공포한 무역장관령 ‘2015년 제 6호’에 따라 맥주 등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 판매를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로 제한했으며, 3개월간의 준비 기간 이후 미니마켓(편의점)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전시회 안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인 시인 이태복과 수필가 김성월이 가슴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이태복 화백은 “인도네시아에서 23년 살아가는 동안 흙과 물이 내 육신의 일부가 되고 문화는 나의 혼을 적셨다. 꺾어 가는 나이 뒤늦게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막연히 사랑하고 스쳐 지나쳤던 부분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알게 되었기에 그림을 그렸다” 고 한다.

여행작가 김성월은 10년 동안 250여개 지역을 다녔고, 약 100명의 PD들과 다큐멘터리 촬영감독들이 담은 모니터속의 영상을 보아왔고 신미식 사진작가와와는 순간포착을 황금비율에 담은 실전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김성월 여행작가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여행에 관련된 책을 두 권을 출간하였지만 그래도 보여 줄 사진들이 많아 사진전을 계획하였고, 도로교통 체증으로 갇혀진 공간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에게 ‘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 전시회는 오지 사람들의 삶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냄새 가득한 고향과 가족애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 전했다.

이태복/ 경북 예천 출생 시인. 화백.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및 기자 라디오방송 진행자

김성월/ 방송프리랜서. 여행작가. 수필가
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지!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국제교류문단미래문학. 의성문인협회.

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
Indonesia dalam kuas dan lensa

전시기간/Pameran: 2015. 5. 21(Kamis)~26(Selasa)
전시장소/Tempat :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Equity Tower 17th, SCBD,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행사일시/Acara : 2015. 5. 21(Kamis) Jam. 18:00
관람시간/Buka : 09:00 ~ 17:00(Setiap hari)
전시작품/Karya : 그림, 이태복 화백(Mr. Lee T.B)
사진, 김성월 여행작가(Mrs. Kim S.W)

후원(DiSponseri):

그림, 자바의 촌로 사진, 이제는 네가 무겁구나



순간 & 영원



[사진] Jiri Dokoupil / Deutschland

키 작은 사람 까치발 서지 않아도 되는 나지막한 저녁이면
세상의 모든 신발들 현관에 모여 땀을 말리며 무용담에 들뜬다

저녁이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발가락 꼬물거리는
아직 태중의 내일 아침은
새로운 바람이 되어 태어난다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저녁 해는 저리도 붉고, 때맞춰
가로등 불빛 환하게 켜지는 것이다

키 작은 사람 작은 노래도 깊은 울림이 되는 이런 저녁이면
어둔 하늘에 불 밝힌 손들이 음식을 나누며 내일의 숨소리가 된다

가슴을 뛰게 하는 또 하나의 도전 ...



작 성 자 : 김 미 랑(헤리티지 박물관 3기 교육생)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카르타에서 나의 선택은 그것 뿐이었다.
취미를 찾으려고 애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기다리고, 기대를 버렸다.

그런 나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그 날도 편안한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하
던 중 <헤리티지 인도네시아박물관 가이드봉사자
교육생 모집>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곧 자
세를 고쳐 앉으며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았다..

미스터리를 좋아하던 나는 유물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았고 봉사 활
동이라는 점에서도 호감이 갔다. 한국에 있을 때
부터 봉사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도전이 어려
웠는데 단체에 소속이 되어 봉사가 자연스럽게 이
루어진다면 그것도 참 좋은 기회지~ 싶었다.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소극적인 나의 성격은 여지
없이 발동되었다.

첫째, 화, 토요일 주 2회 총12주간의 교육 동안 3
회 이상 결석하면 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항목에
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의 레슨을 따라 가야 하
는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둘째,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공부하는 건 흥미로울
것 같은데 교육 이후 소극적인 내가 남들 앞에서
가이드를 잘 할 수 있을까?
셋째, 영어를 잘 해야 하나?
넷째, 박물관 공부보다 생활에 필요한 바하사 인
도네시아 공부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나
의 안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항상 안 될 경우의 수
부터 찾아 걱정하는 것이 문제였다.
역시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내 기억 속에서 저 멀리 사라지고 있던 어
느 날, 가깝게 사시는 지인 분께서 헤리티지博物
관 수업을 다녀오셨는데 너무나 괜찮으시다고 하
시면서 추천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인연일까? 나에게 온 기회인데 또 소심한 성격으로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분의 얘기로는 이번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거라고,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귀뜸해 주시니 더욱 더 나의 소심증은 고개를 내리고 전에 메모해 두었던 회장님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헤리티지 @@@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회장님의 목소리는 편안한 옆집 언니 같았다.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처음 통화하는 분에게 이것 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냈고, 회장님은 나의 걱정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다. 더군다나 빠진 교육내용은 따로 보충수업도 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헤리티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헤리티지센터로 가서 가입신청서와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름표 하나를 건네 받았다. 작은 그것에서 이상하게도 소속감이 생겨나고 내가 무언가를 벌써 해낸 듯한 뿌듯함이 찾아 들었다.

첫 교육을 가던 날, 박물관은 전에 한번 다녀 온 경험이 있어 낯설진 않았지만 자카르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에 흥분되어 있었다.

드디어 도착!
다행히도 지인 분이 계셔서 쉽게 일행을 찾을 수 있었고, 나 말고도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동지감도 생기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우리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교육을 받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 밀폐된 강의실 같은 곳에 앉아 교육이 진행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상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내가 간 날은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민속관에 전시된 유물들에 대해 헤리티지에서 7년간 봉사활동을 하신 선배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수마트라, 자바, 발리,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

푸아의 유물들을 하나 하나 용도와 의미, 유물에 담긴 전설 등을 박물관 구석구석을 다니며 유물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중에서 파푸아에 사는 아스맛족은 전쟁터에 가기 전에 큰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을 엠비스 기둥이라고 부르고, 죽은 조상에게 복수를 약속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아스맛족이 예전에는 인육을 먹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선배님의 해박하신 유물 설명이었다.

‘어찌~ 이렇게 많은 유물들의 이야기를 술술~~ 자동판매기 마냥 유물 앞에만 딱! 서면 쏟아내는지~ 와우! 진짜 대단하다. 이게 가능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길래?’ 하는 생각과 함께 선배님이 정말 경이로워 보였다

그렇게 1시간가량 열정 가득하고 세심한 강의가 끝나자 동기들의 유물 발표가 시작되었다.

교육 중에는 제공되는 헤리티지 유물설명집, 이것은 영어번역봉사자 분들의 노력으로 제작된 한국어 교육자료이다. 이것을 참고하여 교육생들도 1인당 2~3개정도의 유물을 발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도에서 인도네시아의 섬 이름과 인구의 수, 종교, 인도네시아의 간략한 역사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의 뜻이 ‘승리의 땅’이며 그것은 약17세기경 이슬람왕국인 드막왕조 시대 때 포르투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박물관 수업을 듣고 난 후로 인도네시아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도 곧 다음 시간부터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그런 나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회장님께서서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가이드 할 때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선배들도 처음엔 무척 떨었지만 교육 후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처음이 어렵지 게

속하다 보면 능숙하게 잘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니 겁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발표를 해야 유물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정말 회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무척 떨렸다. 손에 든 마이크는 덜덜 떨리고 목소리도 덜덜..... 외웠던 유물 내용은 백지처럼 하얗게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횡설수설로 마무리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동기들 모두가 처음에는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우리들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항상 첫 마디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였다. “참 잘하셨죠? 어쩔 이렇게 재미있게 발표하세요?” 라고 말씀 해주셨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 동기들은 더욱 더 서로를 격려해가며 유물공부를 하였고, 부족한 발표 부분은 회장님의 보충설명으로 완성되어 갔다. 그렇게 해서 유물의 이야기는 하나 둘씩 나의 것이 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이 중간쯤 다다랐을 때였을까?
어김없이 돌아 온 토요일 오전 9시, 미리 우릴 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계신 강사님을 만났다. 그 분 역시 헤리티지 선배님 최미경선생님이셨고, 헤리티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세라믹 교육과정

을 수료하신 분인데 이번에 강사로 나오셨다. 강사님은 유물들을 보기 전에 먼저 벽면에 있는 도자기 연대표를 보시면서 도자기의 변천사와 유약의 발달과정 및 특징들을 설명해 주셨다. 개인적으로 그 설명은 도자기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유물들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기를 만드는 재료인 고령토가 없기 때문에 토기는 제작이 가능했으나 도자기는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 도자기류들은 무역의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유럽으로 수출하던 중국의 도자기가 많이 유입되어 발견된 것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약의 발달로 구분해 보자면 한나라 도자기는 유약의 발림이 두꺼워 도자기가 투박해 보였고, 송나라 도자기는 유약을 전보다 얇게 발라 투명하고 가벼워 보였으며 더 단단하다고 한다.

모든 교육시간들이 신선한 정보들로 가득해 신세계를 만난 것 마냥 흥미진진 했지만 도자기 교육은 개인적으로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증폭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석상관 유물 교육을 받던 날이다. 석상관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끼리 머리를 한 석상이었다. 이 석상은 가네샤라고 하는데 발리여행에서도 많이 봤었던 것이고,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석상이라 낯설지 않았지만 주변 석상들과 다르게 머리가 코끼리인 것이 특이했다. 강사님은 가네샤의 전설을 들려주셨고, 나는 그제서야 코끼리 머리를 하게 된 이유가 그의 아버지 시바신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아버지 때문이었다니! 명상을 좋아하는 시바신이야? 육! 하는 성질이 있으신데? 그래서 명상을 다니시나?’ 하는 생각을 홀로 해보면서.....
더 일찍 이 전설을 알았더라면 딸이랑 박물관을 들렀을 때 재미있게 이야기





도 들려주고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했던 석관을 욱조라고 알려주진 않았을 텐데.....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차로 이동 중에 길이 막혀 지루해 하는 딸아이에게 나는 가네샤, 로로기똘, 두르가 등의 전설을 옛이야기 하듯이 들려주곤 했다. 그날도 교통체증에 멈춰선 차 안에서 딸과 딸아이 친구에게 가네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자, 딸이 “엄마! 내가 해 줄게~” 하더니 친구에게 가네샤 전설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게 아닌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느덧 아이도 나와 함께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유독 나는 박물관 교육 중에서도 유물 속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야기들이 매력적으로 와 닿았다. 그래서 일까?

가이드 참관 시 어른 위주의 설명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아이들만을 위한 박물관가이드 <전설로 풀어나가는 박물관이야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제 12주의 교육이 끝났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헤리티지 박물관 가이드 교육 이후, 나에게 는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우선, 어디를 가든 작은 돌 조각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

보잘 것 없이 보이더라도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소심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되든

안 되든 우선 시도는 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료가 생겼고 그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에너지 넘치시는 헤리티지 회장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4월25일 JIKS 나래홀에서 헤리티지 코리안섹션주최로 스쿨프로그램행사를 가졌다. (즉자 설명회의 모습)



페르난도 보테로, 〈가족〉



작가 : Fernando Botero Angulo (1932~)
작품 : 가족(A Family, 1996) oil on canvas,
195x155cm

새들은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고
 냇물은 푸른 들판을 달려 나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집집마다 보물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가없는 사랑의 부모님들과, 하나가 되고자 애쓰는 부부들과
 ‘사람’ 과 ‘사람의 길’ 을 보살피게 되는 은혜로운 날들로 가득한 오월이다.



공기처럼 늘 함께 있어서 소홀하게 되는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세손손 종횡의 고리로 이어져
 오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신기하다. 한 인격의 형성에서 절대적인 요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난
 가정과 가족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일 것이다. 복불복(福不福).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섭리’ 를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듯.

콜롬비아 출신의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는 가족사진을 찍는 촬영기사처럼 수십 점에 달하는 가족풍
 경을 그렸다. 의뢰받은 가족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렸다.

왜 그리도 많이 콜롬비아 배경의 가족들을 그렸을까.
 그는 문화적으로 열악하며 마피아로 얼룩진 메데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19세가 될 때까지 고향
 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약관의 나이에 유럽에서 미술공부를 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당시엔 전 세계가 추
 상 열풍이었으나 보테로는 주변의 야유와 폄하 속에서도 자신만의 화풍을 고수했다. 뿌리를 지닌 토속
 적인 그림이 보편성을 갖게 될 때 가장 세계적인 그림이 되리라 믿었으며, “마술적 사실주의” 로 표현
 되는 비현실적인 구상화에 전념한다.

남미의 색감과 튜브에 바람을 넣은 듯 부풀려진 그의 그림에 유럽 사람들은 환상적이라며 열광했다.
 가장 콜롬비아인 다운 화가로 평가되는 그는 마르케스의 소설이나 피아줄라의 탱고에서와 같이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얻게 된다. 그림에도 고국에선 화가로서의 활동이나 가족의 신변을 보장받지 못했다.
 안전한 작품활동을 위해서 뉴욕, 파리, 피에트라산타, 몬테카를로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80이 넘는 지
 금도 유목민처럼 캔버스 천을 둘둘 말아들고 다니며 열정적으로 회화와 조각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고향 풍경과 가족들의 모습에 애착을 갖게 되었으리라.

그의 인물들은 뚱뚱하다. 이목구비가 작아서 더 뺱뺱해 보이는 인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정물처럼
 배치되어 있다. 정지되고 우둔하며 고요한 느낌을 준다. 토속적인 색채는 단순하고 유아적이며 부드러
 다. 한껏 부풀려진 독특한 양감은 형태와 색채에 관능성과 풍만함을 더해준다. 이들은 ‘생의 기쁨’ 에
 그 근원이 있으며 특유의 유머와 풍자로 남미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에 제작한 <가족> 그림을 보자. 우람한 엄마, 아내의 뒷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그녀는 풍요와 다
 산을 상징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같은 몸체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까각의 모습이
 인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가정’ 이라는 인생무대에 ‘가족들’ 이 자리잡고 있고, 이
 야기가 있어 보이면서도 표정이 없어서 고요한 느낌이다. 기둥처럼 서 있는 엄마는 외부
 의 시선을 등진 채 가족을 품고 있고, 아빠는 아내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리고 배경의 나무. 서로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얽혀 올라가며 하나로 되는 모양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푸르른 가정의 달에 보테로의 <가족>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건 그의 작업이 늘 고향에 뿌리
 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은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그림이 설명 없
 이 쉽게 이해되기 바라는 그의 철학을 생각해보면 이 글도 사족이 되리라.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돈과 사람에 대한 명상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요즘 TV를 보다보면 성완중 경남기업 전회장에 대한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정치권 실세들에게 그동안 성전회장이 돈으로 청탁을 벌였다던 정황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지 못한 일로 장기간 언론을 장식하고 있으니 그는 죽어서도 영혼이 편치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하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에서 돈과 사람과는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기도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가늠하기도 하지만 이치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체 역시 돈이라는 존재이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해놓은 사람도 그 돈을 이용하여 권력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힌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이란 참으로 중요하고도 필요한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다. 돈이 없으면 하루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주거문제는 물론, 밖에 나갈 때도 차를 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모든 일상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에 사람들은 돈을 벌기위하여 밤낮없이 모든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간혹, 교육이나 예술, 사랑이나 종교를 위하여 길을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분주하게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평생 큰돈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채로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돈을 번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는 과거 경제적인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어느 나라 기업인 못지않게 굴지의 재벌이라는 고지에 도달해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이름을 남긴 사례도 많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을 희망한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의 차이

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겠지만 비교적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 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처럼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직장생활도 그나마 꿈에 그리던 그림 속의 풍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돈과 직결된 우리의 삶이기에 정기적인 교육을 마친 청년들에게는 그시기에 걸 맞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원활하고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절약’이라는 단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다. 만약 절약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대로 낭비를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해도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길어 나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버는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한 재테크의 노하우도 중요하다. 그것은 노후에 편안히 살기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콤턴’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그는 “세상에는 저축하는 자들과 낭비하는 자들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인간을 개화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축하는 자와 근검절약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낭비하는 자는 언제나 이들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신의 섭리다. “라고 그는 말했는지도 모른다.

노인이 되어서도 젊었을 때 절약을 해서 저축을 했다면 노후의 삶은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홀로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가 있게 된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놓았다 해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사회적인 봉사활동으로 여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취미생활과 건강을 위한 식도락을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바쁜 사람들도 많다. 많은 재산을 움켜쥐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모든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놓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가는 사람도 보았다.

돈이 많아 아무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얼굴을 보면 어두운 그늘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은 아마도 행복의 열쇠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인생은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세상은 말없이 모든 삶들을 수용하며 주어진 시간위에서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현대의 삶이란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마저 빠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도 돈을 떠나서 휴식을 취하는 힐링의 시간이 절실하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소망을 꼽는다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걸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말할 것이다.

돈을 벌기위하여 우리의 삶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에 만일 환경이 허락한다면 잡다한 생각 다 털어버리고 자연에 폭 빠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가보다. 성공의 반열에 오른 어느 기업인의 인터뷰 중에서도 그 역시 소원이 하나있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일 산과 자연을 접하며 살고 싶은 것이 남아있는 꿈이라고 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한다. 그 돈으로 살아있을 때 덕을 많이 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회에 기부도 한다면 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원초적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간의 삶이 그 누구라도 쉽게 단정 짓지 못할 만큼 미묘하고 난해한 까닭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명자체가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목적 때문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돈과 연관되어있는 세상사가 한없이 작고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돈과, 사람과 인생, 그 불가분의 관계, 자연 앞에선 그저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인생인 것을, 돈을 쫓지 말고 마음의 행복을 쫓아 진정으로 영혼이 평화로운 삶을 꿈꾸어 본다.



범선이 아름다운 순다 끌라빠 항 (Pelabuhan Sunda Kelapa)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자카르타 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순다끌라빠 항은 옛 자카르타로 알려져 있다. 북부 자카르타의 찰리웅(Ciliwung)강 어귀에 위치하며 흥미로운 삶의 현장으로 분주함과 활기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이다. 부둣가에 끝없이 묶여있는 목선들은 범선이며 밝은 색으로 물들여져 강한 햇빛과 함께 거친 생명력이 느껴진다. 이처럼 이곳은 그림 같은 장소로도 유명하다. 등 뒤에서 뒤적이는 바다물결에 그을린 뱃사람들과 함께.

이미 12세기부터 잘 알려진 순다끌라빠 항구는 당시에는 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였다. 서부 자바 순다 힌두왕국 빠자자란(Pajajaran, 15세기-16세기)의 수도(현:보고르)와 바다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항구였다. 16세기에 빠자자란 왕국은 후추, 쌀, 타마린드(열대산 콩과의 상록수, 열매는 약용·요리용으로 사용), 농산물과 금, 가축을 순다 끌라빠 항을 통해 수출

했다. 중국과 일본, 남부인도, 중동에서 온 해외 선박들이 이 항구에 정박하고 도자기와 커피, 비단, 천, 향수, 말, 포도, 그림물감 같은 각 나라의 원산물을 가져와 인도네시아의 향료와 교역했다. 따라서 누산따라(인니군도, Nusantara) 왕국, 또는 유럽 국가들도 모두 이 항구를 지배하려고 했다. 결국에는 네덜란드가 300년 동안 이 항구를 지배하게 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시대에는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였다. 17, 18세기까지 순다끌라빠는 유럽과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8세기 중반에는 미국과 직접 교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50년대에는 바다가 수심이 얕아 선박들이 항구에 정박할 수 없어서 크게 불편하였다. 게다가 1869년 수에즈운하가 건설된 후로, 순다끌라빠 옛 항구는 늘어난 운수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1877년 큰 상선(商船)들과 객선을 위한 새 항구 탄중쁘리옥

(TanjungPriok)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초의 바타비아~Buitenzorg(보고르) 철도도 부설되었다.(1813~1925). 드디어 1886년 순다플라빠 항의 동쪽 15킬로미터 지점에 탄중쁘리옥 항이 개항된다. 18000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항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자카르타에만 6개의 항구가 있다. Sunda Kelapa, Tanjung Priok, Ancol Perahuban Marina, Kali Baru, Muara Baru, Angke이다.

처음에 순다플라빠 항은 길이가 180미터인 운하로 건설되었다. 1817년 네덜란드 정부가 1.825미터까지 확장하였고, 독립 후 인도네시아는 3.250미터까지 확장한다. 현재 순다플라빠 항은 760헥타르 육지와 16.470 헥타르 영해로 이루어져 있다.명칭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가 1974년 3월 6일 자카르타 주지사령에 따라 순다플라빠를 항구 이름으로 정식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항구에는 최고(最古)의 어시장(Pasar Ikan)이 있어서 빠사르 이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전에는 sunda(Suku 명칭)pura로 불리다가 빠자자란 왕국때는 Sunda kalapa라고 불렀다. 현재 자카르타 정부가 깊은 역사 가치가 있는 순다플라빠 항을 유적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KOTA TUA 지역이 있고 인도네시아의 과거 해양세계와 네덜란드 식민유산을 보여주는 해양 박물관(동인도회사창고), VOC의 조선소와 보수한 VOC 건물들이 있다. 이처럼 역사적인 지역이며 유적지로 둘러 싸여 있어서 순다플라빠 항은 훌륭한 해양관광지가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카르타의 무

역 중심인 글로독(Glodok)과 빠사르 빠기(Pasar Pagi), 망가 두아(Mangga Dua)와 가까워서 전략적 위치이다. 그 외에 관광지 안쥘(Ancol)과도 가깝다. 현재 PT. Pelindo II에서 관리하고 있다. 순다플라빠 항에 있는 범선은 100년 전후부터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까지 있으나 디자인은 이 군도의 섬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했던 것 그대로이다. 지금은 거의 모두 두 개 이상의 마스터를 가진 세로돛의 범선에 모터가 달려있고, 발전기, 펌프가 있지만 아직도 항해자들은 수세기 전과 같은 무역 로를 사용하고, 별을 보며 항해한다. 범선은 술라웨시의 부기스 종족(Suku Bugis)이 만들었으며 배이름을 빠니시(Pinisi)라고 부르는데 술라웨시까지는 빠니시로 12시간이 걸린다. 범선 빠니시는 사각 삼각형의 돛을 달고 파도가 높고 거친 바다에서도 맞바람을 비껴 받으며 꿈과 자유를 안고 나아간다. 무게도 가벼워 육지 가까이까지 배를 대어 조사하거나 물으로 끌어올려 고치기도 쉽다. 이 범선에 사용되는 나무는 Kayu Olin이고 자피나무를 사용하기도 한다. 범선의 길이는 28~30m이고 높이는 배 밑이 얕으면 3m이고 깊은 곳은 7~8m이다. 배 한 척의 가격은 약 3억 5000Rp이고 600톤~1500톤을 실을 수 있다. 배 위에 적혀 있는 K. L. M(Kapal Layar Mesin)은 돛과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배라는 뜻이다. 다른 쪽에는 목선이 아닌 쇠로 만든 배가 있는데 엔진만 사용한다는 의미의 K.M(Kapal Mesin)이 적혀있다. 한편 20세기 때부터 이 화물선들은 주로 목재를 실어 나르는데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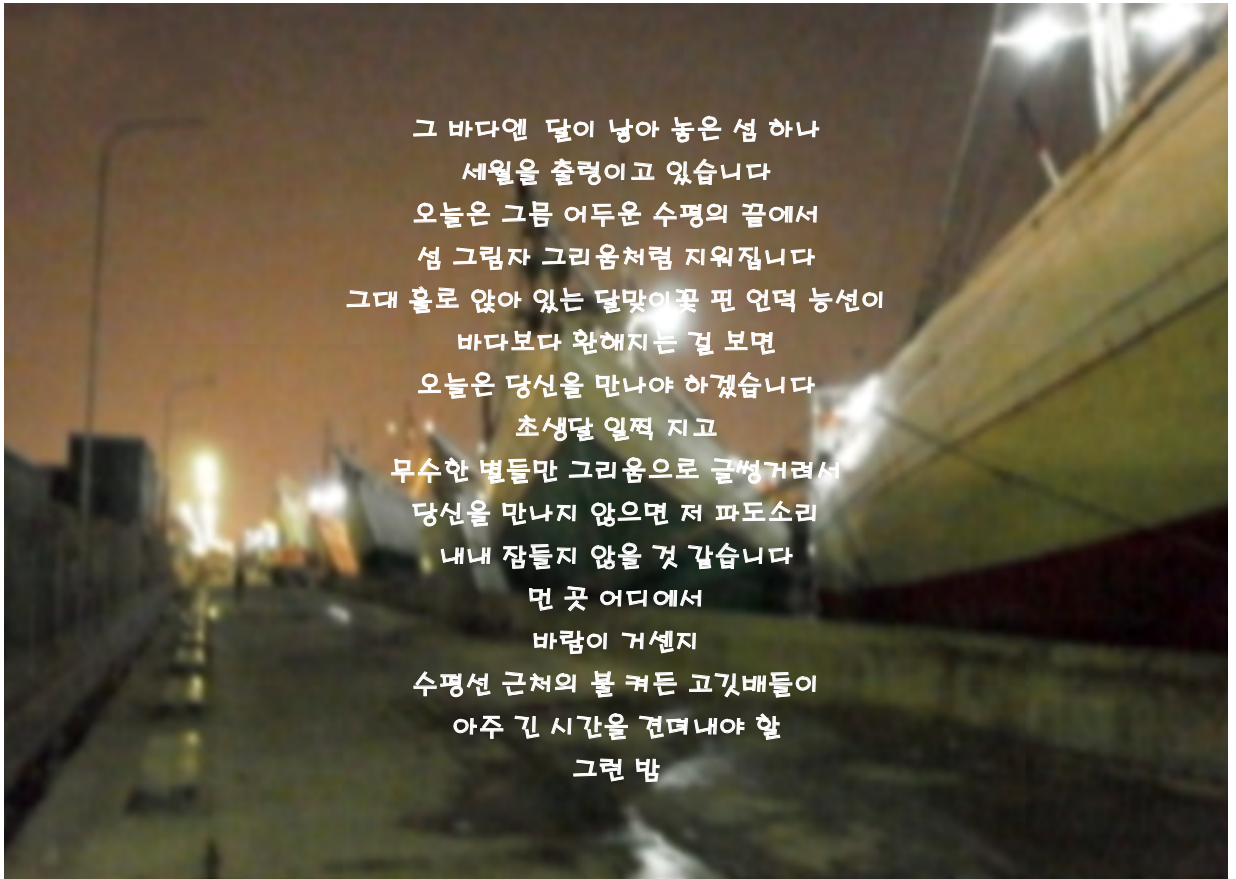
웨시에서 천연원료를 가져오고 가공물을 다시 싣고 간다. 예를 들면 칼리만탄의 티크(teak)와 마호가니(mahogany)는 자카르타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져 다시 원산지로 간다. 이처럼 순다끌라빠 항은 자카르타의 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는 이곳에서 목재가 제각기의 향기로 세계 여러나라로 나갔다. 배들은 돌아가는 길에 빨렘방(수마트라), 우중 뺨당(술라웨시), 뽀띠약(칼리만탄)으로 가져가기 위한 시멘트, 쌀, 까뽁(매트리스와 베갯속을 채우는데 쓰이는 것으로 열대나무 씨앗에서 뽑은 비단 같은 섬유질)을 싣는다. 그 외에도 이 항구를 통해서 출입하는 선박들은 식료품과 의류, 직물 같은 잡화를 각 섬으로 가져간다. 또 자바 섬 외에 건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철과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재료도 많이 운송한다. 또 자바 섬 외에

서 가져온 목재와 등나무, 고량, 코프라(야자유의 원료)의 하역 항구가 되기도 한다. 하역 항구뿐만 아니라 창고 역할도 한다. 이처럼 순다끌라빠 항은 정말 바쁘고 분주한 곳이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과정은 인력으로 한다. 화물을 싣는데 사용하는 기계가 없다. 화물선에 일꾼들이 싣고 내리는 짐들은 매우 무겁다. 배와 부두를 연결하는 건널판은 40cm 폭의 나무 널빤지로 되어있다. 항만 노동자들은 어깨에 10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올려놓고도 이 건널판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마치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록그룹 ‘체리필터’가 부른 노래 ‘낭만 고양이’는 거미를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슬픈 바다로 떠난다. 도시의 추함과 아름다움 모두 맛본 밤고양이가 자유를 찾아 바다로 떠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삶의 비전을 주는 바다가 남아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설레임인가. 항구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 받기도하고, 바다에서 한없는 그리움을 달래며 삶의 빈자리 채웠으리라.

순다끌라빠 항은 자카르타의 출발점이기도 한 역사적인 장소로 옛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바다에 남아 있다. 키 큰 돛을 단 범선과 함께





그 바다엔 달이 남아 놓은 섬 하나
세월을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름 어두운 수평의 끝에서
섬 그림자 그리움처럼 지워집니다
그대 홀로 앉아 있는 달맞이꽃 편 언덕 능선이
바다보다 환해지는 걸 보면
오늘은 당신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초생달 일찍 지고
무수한 별들만 그리움으로 글썽거리며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저 파도소리
내내 잠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 곳 어디에서
바람이 거센지
수평선 근처의 불 켜든 고깃배들이
아주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
그런 밤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274회- 280회 문화탐방 르바란특선 첫 해외탐방

주제: 인도네시아와 문화비교 탐방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베트남 하롱베이 하노이

일시 : 2015년 7월 18일(토) - 7월 24(금) 6박7일

진행 : 정대식(자유여행가)

회비 : USD 1600(비회원USD 1610)

(비자, 가이드비, 민속공연 등 일체포함)

신청마감 : 1차 5월2일 / 2차 5월9일 선착순 : 15명
(2차는 회비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0816784216 (KT ID IBjang313)

08161909976 (KT ID love520813)



지진 발생시 장소별 대처요령

얼마 전 네팔에서 참 큰 규모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리알고 대비하면 큰 사고는 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지진 대처법

- 지진 발생할 때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물건 등을 정리를 합니다.
-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나 응급의약품 위치를 꼭 알아둡시다.
- 난방기구나 가스 기구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 둡니다.
- 지진 발생 후 흩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가족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집안내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집밖으로 나오지 못 하는 경우 실내의 식탁이나 단단한 공간 등의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 가족과 함께 혹시나 하는 지진대비를 위한 훈련을 해봅니다.



지진 발생시 10가지 대피요령 및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때

- 가족과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낮고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세요!!
- 가구가 넘어지거나 올려놓은 물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불이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끌수 있도록 합니다.



〈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니다 〉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 소화용 〉

2. 화재발생시 불을 끌 기회는 3번!!

- 첫번째 : 크게 흔들리기전 또는 흔들림이 작을때.
크게 지진이 나기 전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지르고 사용중인 가스렌지나 난로 불을 끕니다.
- 두번째 :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
흔들리고 있을때 불끄는행위는 아주 위험합니다. 멈추면 다시 끄도록 합니다.
- 세번째 : 발화된 직후.
화재가 발생해도 1-2분 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둡니다.

3. 집 밖에 있을 때

- 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기대지 마세요! 지진시 무너져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시내나 빌딩등에서 가장 위험요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 입니다.
- 반드시 손이나 가방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세요.
- 빌딩건물 거리에서는 상황에 따라 건물 안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자. 낙하물이나 블록담!
〈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합니다 〉



〈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4. 사람 밀집 건물이나 지하에 있을때

- 백화점이나 지하상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 지하 상가의 경우 비교적 지진에 대해 안전한 편인데요. 정전이 날 경우에도 비상등이 작동을 하니 겁먹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 화재 발생시 연기가 발생하므로 자세를 낮춰 연기 질식에 주의하세요.

5. 엘리베이터에서의 대처법

- 고층이나 최신건물이 경우 지진 발생시 자동적으로 가까운 층에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갇히게 된 경우 비상버튼을 눌러 안전요원과 연락이 닿도록 합니다.
- 지진 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6. 전철에서의 지진 대피요령

- 전철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합니다.
- 진도 5 이상 발생을 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 선불리 열차밖으로 나가게 되면 위험하니 안내방송에 따릅니다.

7. 운전하고 있을 때

-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한쪽에 차를 세워둡니다.
- 라디오 등의 대피요령을 듣고 부근에 경찰이 있으면 지시를 따릅니다.
- 화재시 차안으로 불길기 번지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문은 잠그지 않도록 합니다.

8. 산이나 바다에 있을때

- 산이나 경사지에는 산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바다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해일특보가 있다면 안내방송이나 TV등의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9.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을때

- 지진이 발생한 경우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전이나 교통제증으로 인하여 구급대나 의료기관은 평시와 같이 활동을 못 할 수 있습니다.
- 부상자 중에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응급처치에 대해 배워둡니다.

10. 피난은 마지막 대피 요령

- 지진이 발생하여 화재가 번지게 된다면, 신속히 대피하여야 하는데요. 대피방법은 관계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의 안내에 따르고, 최소한의 물품만을 소지하고 걸어서 가야합니다.
- 평소 대피소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시 대피하도록 합니다.



헤리티지 국립박물관 5월 정기투어 안내

알차고 재미있는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를 공지합니다. 2015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 무료 투어를 실시합니다. 셋째 주에 박물관 휴관이라서 4주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박물관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 선까지 제한
- 장소... Jl.Merdeka No 12 National Museum (Museum Gajah)
모나스 원편
- 일시... 2015년 5월 23일 (토)
9시 30분부터 한시간반 가량
- 신청...인도웹 / Pagi 앱 / 헤리티지 밴드

*VIP 대상 스페셜 투어는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 30차 헤리티지 탐방 직물 박물관

- 일시: 2015년 6월 6일 (토) 9시 30분
- 장소: Textile Museum, Tanah Abang

- 신청접수 : 이메일, 카톡, 헤리티지 밴드로 신청하시고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 일정: 9시 30분 직물 박물관 집합
본 전시관 안내 시작
- 10시 바틱 전시관 안내
- 10시 30분 천연 염료 나무 및
직조기계 소개
- 11시 바틱 제작 체험
- 11시 40분 행사 종료
- 12시 점심식사 레스토랑
끔방 굴라
- 1시 끝

- 이메일: 7547yh@hanmail.net
/ 카톡 아이디 : yunhirim

- 회원가입: 헤리티지 도서관 또는 웹사이트
(www.heritagejkt.org)
헤리티지 도서관: 스나얀 플라자
내 소고옆 센트랄 스나얀 1번 건물 17층
- 전화: 021)572-5870 Ms. Nida (영어/인니어)
매년 9월에 회원 갱신합니다.

- 회비: 회원 20만 루피아 (입장료, 바틱 제작 및 가이드 비용 포함, 점심 포함)
비회원 30만 루피아

헤리티지 코리아안섹션 회장 이수진

한국섬에서 사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소통하며 5천년 역사를 이어왔다. 1945년 8월 15일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았고,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어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은 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분단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육지로 연결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 가려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만 하는 섬나라가 되었고, 한국인도 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많이 갖게 됐다.

그렇다면 한반도라는 섬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730만 명의 한민족은 정말 섬에서 벗어났을까? 많은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한국섬이라는 또 다른 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국인들은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지금은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외국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한국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한국인들끼리 동호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지 20년 이상 된 한인들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인들 눈에 한국인들은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 옷차림까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어색해 보이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어색해 보이거나 고쳤으면 하는 한국인의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 중 대표적인 것이 바틱(batik), 찻빳찻빳(cepat cepat), 음박(mbak) 등이었다.

올해 초 한 행사에 참석했을 때, 지한파 인도네시아인이 나에게 다가와 한국인이 바틱을 부적절하게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면, 입구에서 서있는 인도네시아

인 종업원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한국인들이 바틱을 입은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바틱은 시간, 장소, 행사의 성격, 행사의 주체인지 손님인지에 따라 소재, 문양, 소매 길이 등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낮시간에 업무를 할 때는 비교적 단순한 문양에 면으로 된 짧은 소매 옷이 좋고, 저녁에 열리는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는 다소 화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는 긴 소매 옷을 입는 편이 좋다. 특히 행사의 주빈인 경우에는 무늬가 더 화려해야 한다.

바틱은 염색 방법에 따라 손으로 일일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바틱 툴리스(tulis), 도장처럼 틀을 만들어서 문양을 찍는 바틱 째(Cap), 그림을 인쇄하는 바틱 췌탁(cetak) 등이 있다. 가격은 바틱 툴리스가 가장 비싸고 이어 바틱 째, 바틱 췌탁 순이다. 색상에 따라서 오리지널, 퓨전과 모던으로 분류한다. 오리지널은 전통적인 염료를 사용한 만큼 색상이 다소 어둡고 무늬도 강해서 한국인들이 덜 선호하는 편이다. 모던은 화학염료를 사용해 색상이 다양하고 무늬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퓨전은 오리지널과 모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옷이다. 천의 종류에 따라 실크, 폴리에스터 섬유, 면 등이 있고, 가격은 실크가 가장 비싸다

그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비싼 실크 소재로 만든 바틱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문양이나 색상이 더 중요하다며, 잘 모르겠으면 현지인들이 입는 옷을 눈 여겨 보거나 뉴스에 나오는 정부 관리나 기업 대표들이 입는 옷을 참고로 하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인들은 기업의 대표이거나 귀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 종업원이 입는 바틱 문양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인도네시아인은 한국인을 떠올리는 단어로 ‘찻빳

쁘' 을 언급했다. 한 한국 회사에 한국인 간부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 회사의 인사 담당 책임자는 한국인 간부들이 지시하자마자 확인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그러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안이 발생하면 전후좌우를 살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1천 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면하고 빠름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혹독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외래문화를 수용하며 동양과 서양 문화를 혼합 발전시켜왔다. 우리에게서 ‘빨리빨리’ 라는 문화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알론 알론 아살 끌라폰’ (Alon alon asal kelakon) 이라 생활규범이 있다. 즉 ‘늦어도 좋으니 확실하게 좋다’ 라는 의미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의 속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신호등 없는 길 건너기이다. 한인들에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보행자들은 절대 뛰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속도로 천천히 건너고, 운전자들은 이들을 피해서 서행하면서 사고도 없고 교통정체도 없이 교통흐름을 유지한다. 나는 길을 건널 때마다 인도네시아 사람만의 속도를 이해해야 무탈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인은 친근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경우는 식당에서 현지인 종업원을 ‘음박’ 이라고 부를 때다. 음박은 자바어로 우리의 ‘언니’ 정도되는 호칭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자바인들이 쓰는 말이다 보니



이 칼럼은 지난 4월 11일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가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한 ‘인도네시아 문화충격’ 이라는 주제의 강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한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쓰게 됐다. 일부 한인들은 음바와 비슷한 의미인 서부자바 지역의 지방어인 순다(Sunda)어 호칭인 ‘냉’ (neng)을 부르기도 하는데, 웬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사투리를 쓰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은 무엇이 좋은지 묻자, 외국인으로서 점잖게 보이려면 성인 여성에게는 ‘이부’ (ibu) 또는 ‘부’ (bu) 남성에게는 ‘바팍’ (bapak) 또는 팍(pak)이라고 호칭하는 게 무난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방송인이며 변호사인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미국인 하일 씨와 표준 한국말을 하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독일인 이참 씨를 연상하면 된다. 하일 씨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는 유머스럽지만 권위는 없어 보인다. 반면 이참 씨의 정확한 한국어를 들으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

현재 전 세계 도처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한인 은 730만 명에 달한다. 100여년 전부터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 진출한 한인들 가운데 현지 주류 사회 진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면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해서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현지인들에게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런 단계에 오려면 우리 한인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는 특정업종 및 특정지역 투자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업종 및 특정 지역에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 2007년 제 1호와 그 개정령인 2011년 제52호를 폐기하고 새로 특정 업종 및 특정 지역에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18호를 발효시키고 법인세 감세 대상을 대폭으로 확대시켰다.

1. 법인세 감세 혜택

1.1. 유형 고정자산 투자액의 30%만큼 상업생산 일로부터 6년에 걸쳐 법인세를 매년 5%씩 감세해주는 제도이다. “예” 를 들면 A사의 토지, 건물 및 기계 투자액이 Rp.1,000억인 경우에 Rp.1,000억의 30%인 Rp.300억만큼 매년 Rp.50억 씩 계산

해서 6년 동안 총 300억 법인세를 신규 투자와 증자 투자에 대하여 감세 혜택과 가속 감가상각 혜택을 준다는 요지이다.

1.2.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혜택

유형자산 구분	혜택내 구년	감 가 상 각 율(%)	
		균등상각법 (세법상 상각율)	정률법
1. 비건물	(세법상 내구년)		
제1 그룹	2년(4년)	50(25)	100(50)
제2그룹	4년(8년)	25(12.5)	50(25)
제3그룹	8년(16년)	12.5(6.25)	25(12.5)
제4그룹	10년(20년)	10(5)	20(10)
2. 건물			
영구건물	10년(20년)	10(5)	-
가건물	5년(10년)	20(10)	-

1.3. 무형자산의 이연상각 혜택

무형자산 구분	혜택 내구년	감 가 상 각 율(%)	
	(세법상 내구년)	균등상각법 (세법상 상각율)	정률법
제1 그룹	2년(4년)	50(25)	100(50)
제2 그룹	4년(8년)	25(12.5)	50(25)
제3 그룹	8년(16년)	12.5(6.25)	25(12.5)
제4 그룹	10년(20년)	10(5)	20(10)

1.4.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이외의 외국 납세의무자에게 배당하는 배당금 세율을 10% 혹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1.5. 5년-10년 적자 보전 혜택

1.5.1. 추가 1년 : 별표 #1의 특정 업종의 신규투자자로 공단 혹은 보세공단에 투자한 회사 .

1.5.2. 추가 1년 : 신규투자한 회사로써 공장 소재지에 Rp.100억 이상 비영리 목적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회사.

1.5.3. 추가 1년 : 제4차년도부터 국산 원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는 회사.

1.5.4. 추가 1년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최소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

1.5.5. 추가 2년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

1.5.6. 추가 2년 : 5년 이내에 제품 연구개발 혹은 효율 향상을 위해 총 투자액의 최소 5% 를 지출한 회사.

1.5.7. 추가 2년 : 별표 #1 및 #2에 기재된 업종으로 이익금 재투자자로 증자한 회사.

1.5.8. 추가 2년 : #1에 포함된 업종으로 보세공단 밖에 소재하며 총 매출의 최소 30%를 수출하는 회사.

1.6. 법인세 감세, 가속 감가상각 및 적자 보전 혜택은 고부가 가치 산업, 수출 산업, 노동집약산업 및 국내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게 줄 수 있다.

1.7.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은 전체 혹은 일부 유형자산은 상업생산일로부터 6년 이내 혹은 상기 “1.2.항” 의 내구연도 종료 이전에 양

도를 금하나 신규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1.8.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은 전체 혹은 일부 무형자산은 상기 “1.3.항” 의 내구연도 종료 이전에 양도를 금하나 신규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법인세 감세 혜택 조건 상실 시 처벌

상술한 “1.항” 의 세제 혜택을 받은 회사가 세제 혜택 조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취소하며, 혜택 받은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3.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는 특정업종. 별표 #1 (번호/ 업종/업종코드(2009년) 별 순서)

1. 육용소(Sapi)종자 및 양축업 01411
2. 티크목(자띠목) 삼림업 02111
3. 탄광에서 석탄 가스화업 05102
4. 지열 발전 06202
5. 동광업 07294
6. 금은광업 07301
7. 조코렐 및 사탕제조업 10732
8. 영아식품제조업 10791
9. 원사방직업 (Spinning) 13112
10. 방직업 13121
11. 원단가공 및 염색업 13132 및 13133
11. 직물편직업 13911
12. 산업용원단제조업 13992
13. 원유정유 및 정제업 19211
14. 천연가스가공밀 정제업 19212
15. Anorganik khlor 및 alkali 산업 20111
16. 기타 Anorganik 기초화학산업 20114
17. 농산물 이용 Organik 기초화학산업 20115
18. 염료 원료용 Organik 기초화학산업 20116
19. 원유, 천연사스 혹은 석탄 이용Organik 기초 화학산업 20117
20. 특별화학제품 생산 Organik 기초화학산업 29118
21. 플라스틱 원료이용 인공레진산업 20131
22. 인조고무 산업 20132

- 23. 치약 포함 화장품원료산업 20232
- 24. 인조 파이버, 실 및 필리멘트사 산업 20301
- 25. 인조 인조철쇠 파이버 산업 20302
- 26. 의약품 원료 산업 21011
- 27. 타이어(안 타이어 혹은 밖 타이어) 산업 22111
- 28. 기초 철강 산업(제강) 24101
- 29. 철 이외 금속 산업 24202
- 30. 철 와이어 가공 산업 25951
- 31. 세미컨덕터 및 전자부품 산업 26120
- 32. 컴퓨터 제조 혹은 조립 산업 26210
- 33. 무선통신기 산업 26320
- 34. 기타 통신기 산업 26390
- 35. 텔레비전 제조 혹은 조립 산업 26410
- 36. 전자 측정기 산업 26513
- 37. 사진기 산업 26710
- 38. 변압기, 변전기 및 전압안정기 산업 27113
- 39. 건전지 산업 27201
- 40. 가습 전등 산업 27402
- 41. 가전제품 산업 27510
- 42. 스팀 보일러, 터빈 및 풍차 산업 28111
- 43. 포토카피기 산업 28174
- 44. 냉동기계 산업 28193
- 45. 영농기 산업 28210
- 46. 기계 및 금속 가공 산업 28221
- 47. 광업, 채굴 및 건설 기계 산업 28240
- 48. 섬유 기계 산업 28210
- 49. 아무데도 분류되지 않은 기계 산업 28299
- 50.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산업 29100
- 51. 4륜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차체 산업 29200
- 52. 4륜 이상차 부품 및 악세서리 산업 29300
- 53. 조선 산업 30111
- 54. 선박 장비, 기구 및 선체 일부 제작 산업 30113
- 55. 2륜 및 3륜 오토바이 부품 및 기구 산업 30912
- 56. 선박 및 플로팅 건물 수리 산업 33151
- 57. 발전 산업 35101
- 58. 천연가스 및 인공 가스 공급 산업 35201

- 59. 저수, 정수 및 배수 산업 36001
- 60. 시내 수송 산업 49413
- 61. 하물 선적 및 하역 산업 52240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산업 62010
- 63. 관광 단지 산업 68120

4.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는 특정 업종 및/혹은 특정 지역 투자. 별표 #2

- 1. 옥수수 영농업, 01111, Gorontalo, Lampung, Aceh, Riau, Sumatera Selatan, Sumatera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Barat, Sulawesi Tenggara, NTB, Maluku Utara, Maluku, Papua, Papua Barat.
- 2. 두부콩 묘판업, 01113, Jawa Timur, Sumatera Utara, Aceh, Sulawesi Selatan, NTB, Jambi.
- 3. 두부콩 영농, 01113, 상동
- 4. 벼 묘판업, 01120, Papua, Papua Barat, Kalimantan Selatan, Sumatera Selatan.
- 5. 벼 영농, 01120, Papua, Papua Barat, Sumatera Selatan,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Lampung.
- 6. 바나나 과수원, 01220, Aceh,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Jawa Barat, Lampung.
- 7. 파인에플 과수원, 01220, Lampung, Jawa Barat, Kalimantan Barat.
- 8. 망고 과수원, 01220, Jawa Timur.
- 9. 소나무 조림, 02112, Aceh, Sumatera Utara, Riau, Jambi, Sumatera Selatan,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Maluku, Papua, Papua Barat.
- 10. 마호니 조림, 02113, 상동
- 11. 소노꺼링 조림, 02114, 상동

12. 알비시아/증진 조림, [02115](#), 상동
13. 찢다나 조림, [02216](#), 상동
14. 아까시아 조림개발, [02117](#), 상동
15. 에카랴투스 조림, [02118](#), 상동
16. 기타 삼림 조림, [02119](#), 상동
17. 상어 제외 지느러미 바다 물고기 어로업, [03111](#), Aceh, Sumatera Utara, Kep. Riau, Sumatera Barat, Jambi, Lampung, Bangka Belitung,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Gorontalo,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Maluku Utara.
18. 바다 갑각류 물고기 어로업, [03112](#),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19. 바다 연체 물고기 어로업, [03113](#),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Sulawesi Tenggara.
20. 농어, 백돔, 병어 바다 양어업, [03211](#), Aceh, Sumatera Utara, Kep. Riau, Bangka Belitung, Lampung, Banten,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Bali, NTB, NTT, Gorontalo,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Barat, Sulawesi Selatan, Maluku Utara,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21. 담수어 낚시 및 빠띤 플로팅 그물 양어업, [03222](#),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Sumatera Selatan, Jambi, Lampung,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engah.
22. 석탄액화산업 (liquifaction), [05101](#),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Kalimantan Tengah, Jambi, Bengkulu, Sumatera Selatan, Sumatera Barat, Riau, Aceh.
23. 사철 제련, [07101](#),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제외)를 제외한 전.국
24. 철광 제련, [07102](#), 상동
25. 우라늄 및 토륨 제련, [07210](#), 상동
26. 주석광 제련, [07291](#), 상동
27. 흑주석광 제련, [07292](#), 상동
28. 복사이트 제련, [07293](#), 상동
29. 동광 제련, [07294](#), 상동
30. 니켈 제련, [07295](#), 상동
31. 망안 제련, [07296](#), 상동
32. 아연 및 지르콘 제련, [07299](#), 상동
33. 물고기 냉동(상어는 제외) 산업, [10213](#), Aceh, Sumatera Utara, Kep. Riau, Sumatera Barat, Jambi, Lampung, Bangka Belitung,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Sulawesi Utara, Gorontalo,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34. Loin Tuan 산업, [10213](#),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Jambi, Bengkulu, Jakarta, Jawa Timur, Bali, Sulawesi Utara, Maluku, Gorontalo.
35. 물고기 Filet 산업, [10213](#), Sumatera Utara, Kep. Riau, Jawa Timur, Kalimantan Barat, Maluku.
36. Surimi 및 Surimi 제품 산업, [10216](#), Sumatera Utara, Kep. Riau, Jawa Tengah, Jawa Timur, Sulawesi Selatan, Maluku, Papua, Papua Barat.
37. 생선(새우 제외) 건조, 가공 및 통조림 산업, [10221](#), Aceh, Sumatera Utara, Kep. Riau,

Sumatera Barat, Jambi, Lampung, Bangka Belitung,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Sulawesi Utara, Gorontalo,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Maluku Utara.

38. 갑각류 생산 건조, 가공 및 통조림 산업, [10221](#),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39. 연체 물고기 건조, 가공 및 통조림 산업, [10221](#), 건조, 가공 및 통조림, [10221](#),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Sulawesi Tenggara.

40. 참치 통조림 및 Cooked Loin산업, [10221](#), Sulawesi Utara, Papua, Papua Barat, Maluku, Bali, Sumatera Utara, Jawa Timur, NTB.

41. 새우 통조림 산업, [10222](#), Maluku,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Sulawesi Utara,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Barat, Gorontalo.

42. 갑각류 생산 냉동 산업, [10293](#),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43. 연체 물고기 냉동 산업, [10293](#),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Sulawesi Tenggara.

44. 새우냉동 및 Breaded산업, [10293](#), Aceh, Sumatera Utara, Lampung,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Kalimantan Barat,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Papua, Papua Barat.

45. 모든 종류의 기타 갑각류 가공 산업, [10299](#),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46. 모든 종류의 기타 연체 물고기 가공 산업, [10299](#),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Bengkulu, Lampung, Banten,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NTT, Maluku, Papua, Papua Barat, Sulawesi Tenggara.

47. 새우 냉동 및 Breaded산업, [10299](#), Aceh, Sumatera Utara, Lampung,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Jawa Timur (Madura 제외),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Kalimantan Barat,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Papua, Papua Barat

48. 과일 및 야채 통조림 산업, [10320](#), Jakarta 제외 전국

49. 과일 및 야채 즙 가공 산업, [10330](#), 상동

50. 마가린 산업, [10412](#), Bali, NTB, NTT, Sulawesi Utara, Gorontalo, Sulawesi Tengah, Sulawesi Barat,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Banten,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를 제외한 전국.

51. 야자유 산업, [10423](#), Sulawesi Utara,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Barat, Gorontalo.

52. 상표 부착 간단한 포장 팜야자유 산업, [10432](#),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Sumatera Selatan, Riau, Bengkulu, Lampung, Kep. Riau, Bangka Belitung, Jambi, Kalimantan Barat,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Tengah.

53. 상표 부착 간단한 포장 Curah 팜야자유 산업, 10432, Kalimantan Barat,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Utara, Maluku,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54. Cokolat Butter류 대체품 산업, 10490,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Sumatera Selatan, Riau, Kep. Riau, Jambi, Bangka Belitung, Bengkulu, Lampung,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Maluku,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55. 연간 산업 케파 50 ton 이상 우유 산업, 10510, Sumatera Barat, Bengkulu, Jawa barat,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Bali, NTB, Sulawesi Selatan.

56. 연간 케파 50 톤 이상 연유 및 분유 산업, 10520, 상동

57. 고구마, 콩 및 밀가루 산업, 10618, Lampung, Jawa, NTB, NTT, Sulawesi

Utara,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Barat, Gorontalo, Maluku,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58. 자연산 사구 제분 산업, 10622, Maluku, Papua, Papua Barat.

59. 사탕수수 및 고구마 포도당 산업, 10623,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를 제외한 전국

60. 쌀가루 및 옥수수 가루 산업, 10633, Sulawesi Utara,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Barat, Gorontalo, NTT, NTB.

61. Kakao 산업, 10731,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62. 커피 가공 산업, 10761, Aceh, Sulawesi Utara, Bengkulu, Sumatera Selatan, Lampung, Bali, Sulawesi Selatan, NTT, Papua, Papua Barat, Sulawesi Barat.

63. 해초 가공 산업, 10779, Jakarta 제외 전국.

64. 면 파이버 산업, 13111, Sulawesi Utara,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Barat, Gorontalo, NTT, NTB.

65. 카펫 산업, 13930,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를 제외한 전국.

66. Kempa천, Felting천, Laken천 산업, 13993, 상동

67. 피혁 제조 산업, 15112, 상동

68. 일반 신발 산업, 15201, Jakarta, Jawa Barat, Banten 제외 전국

69. 운동화 산업, 15202, 상동

70. 산업용 신발 산업, 15203, 상동,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71. 펄프 산업, 17011, Jakarta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를 제외한 전국.

- 72. 문화용지 산업, 17012, 상동
- 73. 유가증권용지 산업, 17013, 상동
- 74. 특수지 산업, 17014, 상동
- 75. 제지 및 골판지 산업, 17021, 상동
- 76. 카톤 박스 산업, 17022, 상동
- 77. 티슈지 산업, 17091, 상동
- 78. 공업용 소금 산업, 20111, NTT
- 79. 농산물 원료 Organik 기초화학 산업, 20115,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Bali, NTB, NTT를 제외한 전국.
- 80. 폭발물 산업, 20292, Jawa Barat,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 81. 인조 혹은 천연 고무 장갑 산업, 22199,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Kep.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angka Belitung, Bengkulu, Lampung,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Papua, Papua Barat.
- 82. 시멘트 산업, 23941,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 Sulawesi Selatan을 제외한 전국.
- 83. 강철 산업, 24101,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Banten.
- 84. 계속 생산 종합 강철 산업, 24102,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Banten, Jawa Barat, Jawa Timur,
- 85. 귀금속 산업, 24201, Kalimantan Barat,

-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Maluku, Maluku Utara, Papua, Papua Barat.
- 86. 기초 비금속 산업, 24202, Sumatera Utara,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Papua, Papua Barat,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Maluku, Maluku Utara.
- 87. 비철 금속 밀링 산업, 24203,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Papua, Papua Barat,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Maluku, Maluku Utara,
- 88. 등나무 혹은 대나무 가구 산업, 31002,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 Bali를 제외한 전국
- 89. 선박 및 플로팅 건물 수리 산업, 33151,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Maluku, Papua, Papua Barat, NTB, NTT.
- 90. Organik 쓰레기 (Sludge, Palm Oil Mill Effluent) 이용 에너지 산업, 38211, Jakarta, Jawa Barat, Banten, Jawa Tengah, Jogjakarta, Jawa Timur (Madura 제외), Sulawesi Utara, Sulawesi Barat,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Selatan, Gorontalo, Bali, NTB, NTT를 제외한 전국.

개미

시 : 이율리 / 그림 : 이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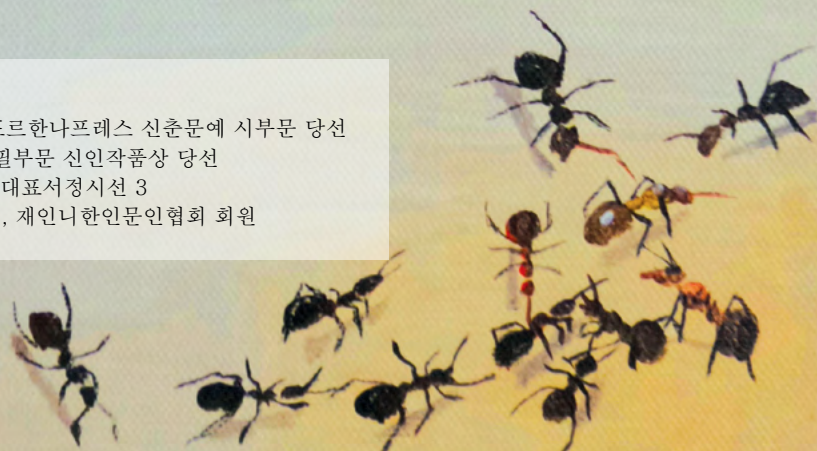
뒷꿈치
보이지 않을 만큼

움직이는 것
보았니?

항상 개미처럼
살아라



이 율 리
2007. 동남아신문 싱가포르한나프레스 신춘문에 시부문 당선
2009. 월간 문예사조 수필부문 신인작품상 당선
공저> 서정의 뜰 2, 한국대표서정시선 3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재인니한인문인협회 회원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도 이젠 한국을 느낄 수 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 회사에만도 여러 명의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백화점 직원 또는 호텔 직원들도 종종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이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재주입니다.

또 그 재주를 가지고 한국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주는 그들이 때론 자랑스럽고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덕달아 저희 KBS WORLD 인도네시아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현지인들도 점점 많아지는 듯합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의 물줄기를 바꾼 주역이 서태지씨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앨범 타이틀곡과 ‘환상 속의 그대’로 신세대들을 흔들었고 ‘하여가,’ ‘발해를 꿈꾸며’ 등 뒤이은 노래들의 도발적 가사와 음악적 실험으로 대중음악의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그에 저도 열광했던 10대 시절이 아련합니다.



Mereka semua buta nada

가족간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가족끼리 왜이래’ 종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가족 노래자랑,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어여쁘게 굴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이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자... 옛 기억을 떠올리면 가족들에게 노래자랑 제의를 합니다.

순봉이는 노래자랑 나가기를 걱정하는 강심이 남자친구에게 “사실 다 음치거든” 이라고 말하며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Buta nada: buta와 nada(음의 높낮이를 뜻하는 ‘소리’)의 합성어로

Buta 는 ‘눈먼, 장님, 아무것도 모르는’의 뜻을 가지며 Buta 단독 또는 합성어로 사용되며, 형용사, 동사, 명사 앞에 위치하며 ~을 못하는 ~에 눈먼 이라는 뜻을 갖는다.오늘은 Buta의 합성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Suara**라고 한다. **Suara**는 소리 외에 ~의 의견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Suara** 외에 목소리 톤 좀 높여주세요 아니면 낮춰주세요 라고 표현할때는 “Nada (소리) bicara (말) “ 라는 속어로 표현한다.

1. **Buta**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1**. Tidak dapat melihat karena rusak matanya; tunanetra (kondisi) **2** tidak tahu (mengerti) sedikit pun tt sesuatu (kiasan) 무지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 Mata Budi menjadi **buta** akibat terkena obat berbahan kimia.

- 화약약품이 눈에 닿아 부디는 실명했다. (장님)

- Peneliti sedang melakukan riset untuk membuat alat penglihatan bagi orang **buta**.

- 소경들을 위한 장비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Orang **buta** belajar huruf Braille agar bisa membaca dan menulis.

- 장님은 책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점자를 공부한다.

2. **Kebutaan** 접두 접미어가 붙으면서 명사화 되어 사용된다. 암흑, 눈이 먼 상태 **1** keadaan buta; **2** kegelapan;를 나타낸다

*Ket. = Kebutaan merupakan sebuah penyakit pada mata karena berkurangnya penglihatan. 어떠한 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경우.

- Glaukoma dan katarak merupakan dua penyebab **kebutaan** di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 장님의 되는 두 가지 원인은 녹내장과 백내장이다.

- **Kebutaan** yang dialami Dodi tidak membuatnya putus harapan.

장님이 되었어도 도디는 절망하지 않는다.

3. **Buta huruf** 문맹 (합성어로) 문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 tidak dapat membaca dan menulis.

- Kemiskinan adalah salah satu penyebab tingginya **buta huruf** di Indonesia.

가난은 인도네시아의 문맹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 Pemerintah melaksanakan program wajib belajar 9 tahun untuk memberantas buta huruf di Indonesia.

- Mahasiswa mengajarkan warga buta huruf sebagai bentuk pengabdian kepada masyarakat.

4. **Buta warna** 색맹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tidak dapat melihat (membedakan) warna dengan baik.

- Kelainan **buta warna** diwariskan secara genetik dari orangtua ke anaknya.

- 색맹은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유전된다.

5. **Cinta buta** 사랑에 눈이 먼 어떠한 감정에 도를 지나쳐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Perasaan cinta yang berlebihan sehingga tidak mengenal logika.

- Orang yang mengalami **cinta buta** tidak melihat kekurangan pasangannya.

- 사랑에 눈이 멀면 연인의 부족함은 보지 못한다.

- Orang yang mengalami cinta buta tidak akan mengindahkan nasihat orang lain.

- 사랑에 빠진 사람(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타인의 충고를 듣지(주의해서) 않는다.

6. **Kencan buta** 데이트, 선 (연분을 찾기위해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미팅을 갖는 것을 뜻한다) Perjudohan yang dilakukan tanpa mengetahui pasangan yang akan dijodohkan sebelumnya.

- Bagi masyarakat modern **kencan buta** merupakan upaya untuk mencari jodoh.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연분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선(맞선) 을 본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Buta의 합성어들이 꽤 많았다.

Buta malam은 밤눈이 어두운 사람을 뜻할 때, **Babi buta** 는 먼가 악의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된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기본을 실천할까

도쓰카 다카마사 저 | 비즈니스북스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인 골드만 삭스,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꿈꾸는 컨설팅 회사 맥킨지,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MBA 명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직접 경험한 저자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지키는 ‘기본’에 대해 정리한 첫 책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잊고 지나쳐온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었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기본을 회사 생활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준다. 첫 책을 읽고 ‘왜’ 기본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공감했던 독자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본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1그램의 용기

한비야 저 | 푸른숲

두려움, 외로움, 불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언제나 무소의 뿔처럼 당당해 보이는 한비야는 어떨까? 그녀 역시 우리처럼 끊임없이 길을 잃고, 헤매고, 길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을 그만두고 6년 전 훌쩍 미국으로 떠났던 한비야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세계시민학교 교장’, ‘UN 자문위원’으로 돌아와 들려주는, 잔뜩 움츠러든 이들에게 전하는 ‘1그램의 용기’이자 ‘응원의 메시지’이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회사에 다니나

오시이 마모루 저/박상곤 역 | 현암사

“영화는 직장인이 봐야 할 가장 좋은 교과서다”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오시이 마모루가 들려주는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 승부에 관한 그의 신랄한 지론에 ‘직장인을 위한 성공법’ 류의 판에 박힌 듯한 기존 자기계발서들과는 다르다. 성공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풀어내는 이 독특한 영화평론/자기계발서에는 우리 시대의 장그래(사회 초년생)와 오차장(중간관리자) 모두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미스터리 책장 제비뽑기

셜리 잭슨 저/김시현 역 | 엘릭시르

이 작품들은 특별한 사건 없이 소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지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야만성과 악을 폭로하여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을 받는다. 또한 1부를 제외한 각 부의 앞머리에 악마에 관한 짧은 인용이, 마지막 5부에서는 악마로 추정되는 남자가 여성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미국 민요의 가사가 실려 있어 분위기를 더한다.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 최인호 공저 | 여백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는 2003년 4월, 길상사 요사채에서 가진 법정과 최인호의 네 시간에 걸친 대담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대담에서 두 사람은 행복과 사랑, 삶과 죽음, 시대정신과 고독 등 11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있는 사색과 시적 은유로 가득한 언어를 주고받았다.



부자들의 연습

장 루이 세르방 슈레베르 저 | 정상필 역 | 레디셋고

문명과 산업의 발전은 각종 분야의 성장을 불러왔다. 이는 기존보다 더 강한 새로운 부류의 부자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냈다. 50년 넘게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이자 이 책의 저자인 장 루이 세르방 슈레베르는 부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신흥국 중심의 높은 성장률이고, 다른 하나는 증가하는 금융자본의 지배력이며, 마지막 하나는 젊은 백만장자 즉 신흥 부자를 양산해내는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탄생한 부자들은 모든 분야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 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막대하다. 그 결과, 부자들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 책은 부자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부의 팽창' 이라는 전 지구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5년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납부명단]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1	승은호	2015	300,000
2	신기엽	2015	300,000
3	조규철	2015	300,000
4	김재민	2015	300,000
5	최양기	2015	300,000
6	홍석영	2015	300,000
7	최석일	2015	300,000
8	김양임	2015	300,000
9	오세명	2015	300,000
10	김영률	2015	1,300,000
11	김창근	2015	1,300,000
12	김대근	2015	1,300,000
13	조용재	2015	1,300,000
14	안창섭	2015	300,000
15	오세윤	2015	300,000
16	HORISON FORBIS HOTEL	2015	300,000
17	NO NAME	2015	300,000
총 금액			Rp11,8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5949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양**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쿵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중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8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름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19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19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찻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타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우리(씨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라스	520	4181
트라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163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1066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143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8515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아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가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는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